

## 24시 목욕탕의 비밀

이아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아빠와 할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다. 아빠는 할머니에게 고집불통이라고 했고,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띵 띵. 현관 키를 누르는 소리에 순간 조용해졌다.

“다녀왔습니다.”

담백한 인사와 함께 신발을 벗었다. 현관 옆에 놓인 소파엔 할머니가 앉아계셨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아빠는 ‘왔냐.’라는 말과 함께 주방으로 향했다. 아빠의 큰 한숨이 이어졌다. 그 숨을 타고 소독약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나는 손을 씻는다며 싱크대 앞에서 가는 물줄기를 졸졸졸 소리 나게 흘려보냈다.

그때 할머니가 침묵을 깼다.

“…………내가 하마. 밤 10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있을게.”

“그냥 문을 닫자고요. 10시부터 6시까지 고작 한두 명 오는데 문을 열 이유가 없잖아요.”

아빠는 차분하게 얘기했다.

“24시간 영업은 무조건 해야 돼.”

“엄마, 인제 그만 고집부리세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힘들어요.”

“난 월급 달라고 안 한다. 10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아니, 왜 계속 고집부리시는 거예요? 어휴, 몰라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아빠는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쿵 닫고 나가버렸다. 미처 아빠를 따라 나가지 못한 소독약 냄새가 달린 현관문 앞을 맴돌았다.

할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독약 냄새를 뚫고 나에게 오셨다.

“유진이 밥 먹어야지?”

“네. 배고파요.”

내가 배고프다는 말에 할머니는 주먹밥을 똑딱 만들어주셨다. 어느새 소독약 냄새는 사라지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번져나갔다. 고소한 주먹밥을 씹고 있으니 어른들의 문제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밤마다 목욕탕으로 출근했다.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가 얼마 못 가서 고집을 꺾으실 거라고 했다. 할머니는 낮과 밤이 바뀌어서 무척 피곤해 보이셨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만두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다. 새삼 할머니의 고집이

대단하다 느꼈다. 24시간 영업을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다.

금요일 저녁 엄마는 휴대폰을 붙잡고 언성을 높였다.

“아니,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을 어디서 구하나  
고요. 내일은 우리 부부도 지방에 일이 있는데. 그럼,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끝내 해결이 안 된 건지 엄마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내일 엄마와 아빠는  
몇 년 만에 부부 동반 모임을 간다고 했다. 인건비가 오르고 나서부터는 365일 교대  
로 일하던 엄마 아빠였다. 최근 주말에만 일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었다. 엄마 아빠를 여행 보내주고 싶었다.

“엄마, 나랑 할머니가 이번 주말에 목욕탕 지킬게.”

“엥? 할머니는 밤새워 일하셔서 피곤하신데 어떻게 그래.”

“할머니 주무시는 동안은 내가 카운터 지키고, 밤에는 바꿔서 하면 되지.”

“애가 쉽게 말하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카운터를 지킨다고  
그래.”

“이래 봐도 내가 13년째 목욕탕 딸내미로 살아왔어요. 엄마 화장실 급할 때 내가  
몇 번 카운터 지켰잖아?”

출근 준비를 마친 할머니가 어느새 내 옆에 서 계셨다.

“그래, 에미야. 나랑 유진이가 있으마. 걱정말고 다녀와라.”

“어머니…… 죄송해서 그렇죠.”

“그렇게 알고 나는 출근한다. 유진이는 내일 아침 혼자 올래? 할머니랑 지금 같이  
갈까?”

할머니는 내 입술을 뺨히 바라보셨다. 지금 갈래요. 하고 할머니를 따라나섰다.

엄연한 봄이지만 밤공기는 서늘했다. 할머니는 나를 어깨로 감싸주셨다. 어깨를  
붙이고 함께 걸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느덧 할머니만큼 훌쩍 자  
랐으니 말이다. 목욕탕에 도착해 수건도 정리하고, 카운터도 말끔히 닦았다. 바닥은  
할머니가 물걸레질로 광이 나게 닦으셨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눈꺼풀이 무거워졌  
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까무룩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가 내 머리를  
조심히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님이 온 모양이었다. 할머니와 손님 사이에 수건  
과 돈이 오고 가는 게 희미하게 보였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니 할머니가 안 계셨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할머니를 찾아 여탕 탈의실로 들어가 보았다. 할머니는

냉장고에 음료수를 채워놓고 계셨다.

“할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뒤돌아 주름진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목욕탕 청소는 해본 적이 없었다. 대충 바닥에 물을 뿌렸다. 아까 들어온 손님이 아직 탕에 있어 빨리 끝내고 나왔다. 젖은 다리와 팔을 수건으로 닦았다. 소독약 냄새가 훅 배어들었다. 전에 아빠와 할머니가 싸우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빠 말이 맞았다. 내가 할머니랑 밤 10시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딱 한 명의 손님만 왔다. 그럼 24시간 영업은 손해다. 이따 24시간 영업하는 이유를 할머니께 여쭙보기로 했다. 당장은 목이 마르니 마실 것을 찾아 냉장고 문을 열었다.

815 콜라를 집어 들었다. 벌컥벌컥. 캔 위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518. 순간 숫자에서 번쩍 빛이 나더니 코와 목구멍에 싸한 느낌이 들었다. 못 견디게 아팠다. 콜라를 잘못 삼켰나? 콜록콜록 계속 맵고 기침이 났다. 코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뛰어!”

손에 이끌려 무작정 달렸다. 한참을 달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안전한지 나를 잡던 손에 힘이 탁 풀렸다. 우리 둘은 벽에 기대 숨을 헐떡였다.

“너 그러다 죽어.”

“네?”

“최루탄이 터지면 무조건 도망쳐야지! 멀뚱거리면 죽는 거야. 군인들은 총 끝에 대검까지 꽂고 덤빈다고.”

노란 티셔츠를 입은 언니가 동생에게 잔소리하듯 나를 타일렀다.

“여기가 어딘데요? 군인이 사람을 왜 죽여요?”

나는 모든 것이 아리송했다. 난 분명 탈의실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은 없고, 꼬마 아가씨 여긴 위험하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집에 가죠.”

“여기는 전남 도청!”

“전남 도청이라고요? 여기서 집 가는 길 몰라요.”

“딱 봐도 국민학생은 된 것 같은데, 집 가는 길을 모른다고?”

“국민학생이요? 저 초등학교생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어. 그럼, 잠깐 여기 있자.”

노란 옷을 입은 언니는 누구를 닮은 듯했다. 누구였더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언니 옆모습을 관찰했다. 그때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그중에 피를 흘리는 사람도 보였다. 노란 옷을 입은 언니는 피 흘리는 사람에게 달려가 천을 돌렸다. 많이 해본 솜씨였다. 나는 모든 것이 무서워서 언니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너! 나랑 밥하러 가자.”

언니가 앞장서서 걸었다. 그곳엔 이미 교복 입은 학생들이 모여 밥을 하고 있었다. 큰 대야 주위에 옹기종기 붙어 앉아서.

“재료는 내가 섞을게. 동그랗게 빚을래?”

“네……. 주먹밥은 몇 번 만들어봤어요.”

언니는 교복 입은 학생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나도 언니를 따라 자리를 잡았다.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밥을 만들었다. 주먹밥을 만드는 중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이곳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광주와 가족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떨어진 이곳이 5.18 역사의 현장임을 알아차렸다. 긴 이야기가 끝나자 주먹밥의 고소한 냄새가 온몸에 났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날이었다. 굽어있던 허리를 펴고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자동으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언니는 내 옆으로 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서로 어깨를 붙이고 앉아 추위를 견뎠다. 그때 급하게 누군가가 뛰어와 소리쳤다.

“계엄군이 무장하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순간 모두가 술렁였다.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나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지금 집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나는 끝까지 남아서 싸울 것이다!”

맨 앞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얘기했다.

“나는 여기 남아서 도청을 지킬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언니가 조용히 물었다. 당연히 나는 갈 곳이 없으니 언니 곁에 있는 수밖에 없었다.

“……있을래요.”

“어린애가 있을 곳은 아닌데. 집 가는 길을 모르다니 어쩔 수 없지. 나만 잘 따라

와.”

언니가 한 손을 뺀어 내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교복 입은 학생도 거의 남아 있겠다고 했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주먹밥처럼 푹푹 뭉쳐 앉았다.

얼마 후, 총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다. 서로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떨림을 느끼고 양옆을 돌아봤다.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지만,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앙다문 입술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그 눈빛은 어떤 의미였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전남 도청을 지키던 남자들 몇 명이 총에 맞고 쓰러졌다.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눈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니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여기 있음 너네도 죽는다.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라. 너네는 꼭 살아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

아까 모두를 지휘하던 남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도 총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끝까지 여기 남을 겁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벌떡 일어났다. 주먹밥 냄새가 훅 밀려왔다 사라졌다.

“지금 총을 가르쳐 줄 시간이 없다. 계엄군이 코앞에 있다. 총을 가르쳐 준다 해도 너네는 군인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을 거야.”

그 남자의 말이 다 맞았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언니는 살아서 진실을 알리는 일이 우리의 임무라며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복도에는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몇몇은 팔과 다리를 잃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언니의 어깨를 잡았다. 남자 두 명이 총을 메고 앞뒤로 우리를 지켜줬다. 건물을 빠져나왔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며 문이란 문은 다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한 교회로 숨어들었다.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준 남자들은 도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 가면 위험해요. 여기 있어요.”

언니가 뒤돌아서 남자들의 팔을 잡았다. 남자들은 언니의 팔을 살포시 내려놓고 도청을 향해 뛰었다.

탕 탕. 얼마 뒤 두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새어 나왔다. 모두가 부둥켜안고 울었다. 밖이 잠잠해지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우리가 시민군임이 들통나지 않게 모든 신분증은 버려야 돼.”

언니가 속삭였다. 교복 입은 학생들은 학생증을, 언니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버렸다. 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다. 버려진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박선희. 우리 할머니와 이름이 같았다.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는데 언니는 우리 할머니였다. 할머니에게 뭐라 말을 걸 틈도 없이 우리는 골목을 향해 뛰었다. 언니가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처음 언니를 만났을 때처럼 강하게. 우리가 밖으로 나가 언니의 집으로 향하던 중 타다다다다닥. 긴 총격 음이 들렸다. 순식간에 주위는 뿌연 연기로 휩싸였다. 헬기가 높은 빌딩을 향해 총을 무자비하게 쏘고 있었다. 내 눈에서 어스레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루탄을 마셨을 때는 코와 목구멍이 아팠는데 지금은 가슴이 너무 아팠다. 헬기 사격에 온 동네는 뿌옇게 변했다. 쿵쿵쿵. 매캐한 연기에 저절로 기침이 났다. 숨이 막혔다.

그때 누군가 내 등을 툭툭 두드렸다. 돌아보니 할머니였다.

“빈속에 그런 거 먹음 못 써.”

얼마나 오래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었던 걸까. 얼음을 던지고 서 있는 듯 발이 시렸다. 열린 수건으로 발을 감싸는데 아까 입장한 손님이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드라이를 든 한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반대쪽 손은 보이지 않았다. 어깨에 걸쳐진 수건이 팔을 살짝 가리고 있었다. 옷을 다 입고 나가는 손님에게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하셨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할머니 얼굴에서 노란 나비가 훌훌 날아올랐다. 할머니가 24시간 목욕탕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제야 할 것 같았다.